

## 제10회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ACAЕ) 참석보고서

###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2)

Report on the ACA-7

#### 처음에

이번 제 10회 건축교육위원회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는 1996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인 호텔 인도네시아 (Hotel Indonesia) 삼바와 I 실(Sambawa I)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아시아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CODHASIA)와 처음에는 함께 진행이 되었으나 서로의 의제가 다르면서도 ACAE 대표가 학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였으므로 도중에 따로 시간을 학장단 협의회에 할애한 후에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95~96년도 ACAE의장인 알위스(Lakshman Alwis)교수(스리랑카/SLIA)의 개회사와 함께 11개국의 대표단(이번 회의에는 중국/ASC, 마카오/MAA, 몽고/UMA, 방글라데시/IAB가 불참하였다.)과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고 한국은 조성룡 교육위원회위원장과 조인숙 위원이 각각 대표와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작년까지는 대한건축사협회안에 교육위원회(Committee for Education and Research)가 없었기 때문에 연수위원회나 국제위원회의 sub-committee로서 참여했었던 이 회의에 올해 연수위원회와 정보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합쳐서 새로 조직한 교육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한 첫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각자 소개에 이어 비자문제로 갑자기 불참하게 된 중국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회의록 작성자(Honorary Secretary)로 스리랑카 대표를 지명한 후 의제에 따라 회의가 시작되었다. 예년에는 10인 내외의 조출한 회의였는데 학장단 회의와 겹치게 되어 참석자는 참관인을 포함하여 24인(23일), 27인(24일)까지 되었다.

전년도 회의록(minutes) 승인에 이어 토의된 내용들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잼버리 (ARCASIA Student Jamboree)
- 회원국 연례활동 사항보고 (Members Reports)
- 3개지역 활동사항 (Sub-Regional Activities)

- 새로운 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소위원회 (Accreditation Committee)
- 학장단 회의 (Council of Heads and Deans ASIA)
- 건축교육헌장 (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1997/1998년도 ACAE 의장(Office Bearers) 선출

#### 1. 제6회 건축학생 잼버리대회

1991년 베이징회의에서 건축학생 잼버리대회 운영지침이 채택된 이후 라호르대회-제4회 잼버리대회(1992), 마닐라 대회-제5회 잼버리대회(1994년)때의 자세한 행사안내와는 달리 주최국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잼버리대회의 행사안내도 없었고 전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잼버리는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잼버리 개최식 및 환영만찬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회에 참석하여 격려를 해왔었다. 다만 학장단 회의진행에 참석한 구나완(Gunawan)교수가 대회진행 및 주

최가 인도네시아 대학 (Univ. of Indonesia)의 학생들이고 그들이 계획한 2시간 가량의 캠퍼스 투어 및 자카르타 관광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 2. 회원국 연례 활동보고 (Members Reports)

6회 ACAE 회의시 표준보고양식을 만들 것이 제안되어 파키스탄협회(IAP)가 표준양식의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표준양식(standard format)은 제8회 건축교육위원회(마닐라/1994.12)에서 9회 회의(싱가포르/1995.12)때부터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0회 회의에는 11개 참석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IAI, 말레이시아/PAM, 싱가포르/SIA를 제외한 8개 회원국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방글라데시(IAB)가 연례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표준양식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국 나름대로 활동보고서가 작성되었을뿐 아니라 보고서를 준비한 회원국도 본 협회를 비롯한 서너군데 밖에 되지 않아서 ACAE의장이 회의 때마다 KIRA를 칭찬했었다.

표준양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주제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회의 3개월 전에 그 원고를 ACAE의장에게 25부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 회원국의 건축교육의 간단한 역사(약사)
- 회원국에서 건축교육에 관련되는 협회의 역할
- 건축교육위원회의 구성
- 건축교육에 필요한 재정
- 건축교육에 관련된 주요 연례행사
- 학생챔버리나 공모전 또는 협회가 후원하는 행사
- 건축대학 또는 건축관련학과와의 정규산학협동 행사
- 건축교육/ 인증제도/ 자격시험 등과 관련하여 협회가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결과물 등
- 건축교육과 관련된 당면 문제들
- 장래 계획
- 기타 주요사항

각국 대표의 보고 내용중 특기할만한 사항을 소개한다.

### 1) 일본(JIA)/히데토 호리이케 (Hideto Horiike)

- 건축교육이 시작된지 100년이 넘었고 170개 대학 및 13개 공업고등학교에서 건축교육을 행하고 있다.

- 일본건축교육 및 정보센터 (The Japan Architectural Education and Information Center) 가 건설부 산하 기관으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을 주관한다.

- 일본건축가협회내에는 학생을 위한 별도기구가 없고 각 지역의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전 일본에 걸쳐 많은 회원들이 교수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건축교육관련 주요행사는 문부성 주관으로 정부기금 수여차 국내외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JIA open desk system '95에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였고 그 동안 157명에게 회원설계사무소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 JIA가 직접 후원하는 학생공모전은 없으나 각 지회가 주관하여 지역의 학교와 협동으로 공모전을 연다. 그리고 JIA는 격년제로 열리는 아시아 학생건축상에 일본화폐 300,000엔(한화 약 240만원)의 상금을 회사한다.

### 2) 파키스탄 (IAP)/Kalim A. Siddiqui

연례활동보고서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교육위원회(BAEP)주최의 학생작품 공모전 성과물에 대한 안내문인

데 1등, 2등은 자카르타까지의 무료여행 (거주지에서 자카르타까지 왕복 비행기표는 건축사협회(IAP)에서, 숙박은 챔보리 주최국 협회 (IAF)에서 후원), 3, 4, 5등은 우수상 상장을 수여하며 작품을 제출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참가증이 주어진다.

### 3) 타일랜드 (ASA)/Dr. Vira Sachakul, ASA Academic Affair 부회장

표준보고양식과는 달리 본국에서의 건축교육대회 보고서와 건축과 학생 수에 대한 자료 및 목록을 제출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반시설들이 건설되는 과정보다 실상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당면한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건축가 수로는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 현 인구비례 건축가 수는 건축가 1명당 인구 15,248명이며 이는 개발국의 1명당 5,000명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이다. 그러므로 학생수 증가 및 그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건축사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책임이 막중하다.

### 4) 대한민국 (KIRA)/조성룡 교육위원회 위원장

KIRA는 96년에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위원회는 건축사연수교육, 건축사자격 시험제도 개선, 건축정보센터 구축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다. 건축관련학과 거의가 공과대학내의 건축과나 건축공학과인 상태에서 최근 건축대학원 설립이 시작되었다. 협회는 매년 건축문화대상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계획건축물부문중 입상 학생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며 1등에게는 학생챔보리에 참가하는 비용을 따로 준다. 각 지부에서는 시민건축 대학을 수시로 열고 학생 워크숍과 전시회를 지원한다.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출하기 전까지 고민했던 사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에 1등으로 당선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금 및 특전이었다. 1등상에게 주어지는 700만원(8,500US\$)+해외여행 특전과 비슷한 사례는 이번 참가국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외국의 경우 학생들에게는 여행의 특전만으로도 충분한데 장학금도 아닌 700만원이라는 상금을 다른 나라의 대표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궁리 끝에 상금에서 '0'을 하나 지울까했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말았다. 일본에서 2년에 한 번 학생 건축상금으로 ARCASIA에 300,000엔을 회사하고 매번 이사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찬사를 받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5) 홍콩 (HKIA)/Anthony NG

홍콩은 1997년 7월경 중국에 반환되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회원자격 새로운 홍콩건축사 시험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중전에는 국가에서 인가된 학교의 5년제 출신만이 홍콩 건축사협회 회원자격이 있었으나 인가되지 않은 학교 출신도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새 제도에 따르면 외지 출신(non-local schools) 및 외국의 등록 건축사들은 다섯 과목에 걸친 설계응용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건축구조(Building Structure), 건축설비(Building Services and Techniques), 건축재료 및 환경(Material & Environment Control), 건축설계 및 주변설계(Building

Design and Site Design)이다. HKIA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HKIA회원이 되고자하는 모든 건축가들에게 기회를 주어 'Open Door' 정책을 고수하여야만 한다.

6) 말레이시아 (PAM)/Parid Wardi bin Sudin교수  
보고서 준비는 안되었다. 교육에 관한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외국의 대학들이 말레이시아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건축교육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론으로 하는 건축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 필리핀 (UAP)/Honrado R. Fernandez교수  
필리핀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장래 계획이다.

- 건축교육의 일환으로 연구, 설계 개발(R&D)의 강좌
- 교수들의 연구여행
- 학생들의 연구여행
- 아시아 학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연례학계대회 - 건축교육자들의 워크숍

8) 스리랑카 (SLIA)/V.N.C Gunasekera  
스리랑카의 경우는 건축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의 역할이나 권한이 큰 편이다. 건축사협회가 Moratwoa 대학의 학위과정들인 B.Sc (Built Environment), M.Sc (Architecture) 를 공인하고 이 학위 수여자들은 SLIA part I, part II시험에서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회원이 되려면 part III (실무자격시험)을 봐야한다. part III 시험합격자는 동시에 RIBA의 정규회원이 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단계인 part I, part II, part III 시험은 영국제도에서 기인한 것인데 유사한 설명은 뒤의 인도건축사협회 보고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한다.)

지난해 협회에서 했던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part I 시험을 위한 강의 (1학년 ~ 4학년)
- part II 시험을 위한 강의 (5학년 ~ 7학년)
- part III 시험 및 스리랑카 건축사협회 등록회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위한 강의.

9) 인도 (IIA)/AR. Vinay Parekar  
인도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건설사업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에 기술자뿐 아니라 건축가나 엔지니어, 도시계획자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다. 당연히 건축과나 공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교육을 위해 학교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설기관들이 우후죽순의 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그래서 1994년 인도 정부는 할 수 없이 최소한의 건축교육 기준(Minimum Standards of AER)을 만들어 사설기관들이 최소기준에 맞는가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다. 지방의 학교들이 기반시설을 할 재정도 불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들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건축교육의 수요가 많으므로 학교가 잘 되는 실정이며 도시에서는 학교부지도 모자라고 교수도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래 계획 : 인도에서는 절실하게 학생교환제 (Student Exchange Program)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건축가들과 일도 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가르치는 경험 및 상호간의 도움이 될 것을 제안한다. 회원국간의 상호관심사에 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

라고 있다.

- 특기할 만한 내용 : 건축사협회 연례 회원자격 시험에 대한 안내책자(Revised Scheme of Examination and Syllabus of Study)로 그 내용에는 목적 및 자격요건 그리고 시험의 종류 및 자세한 과목과 참고서적들이 소개되어 있다. 시험은 part I - part IV까지 네 단계가 있고 한 단계씩 합격을 하고 2년 경력을 가지면 다음단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시험과목에 수 없이 많은 건축관련 과목들 이외에 수학 및 영어, 건축 및 문학사, 기후학(Climatology)이 있고 직업으로서의 책임감 및 경험을 알아보는 구두시험이 있다. 올라갈수록 점점 과목이 전문화되며 매 단계별 설계 시험(Design Project)이 있고 최종단계에서는 발표 및 평론시험이 있다.

설계시험의 평가기준을 예로 들면 part의 Architectural Design-1 시험은 400점 만점에 200점이면 합격 최하점인데, 6시간씩 이틀에 걸쳐 12시간동안 시험을 본다. 시험보기 일주일 전에 설계주제가 알려지며 요구되는 결과물은 제대로 축척이 표기된 기본도면 및 투시도와 특별한 부분의 상세까지도 요구된다. part III의 Architectural Design-2는 500점 만점에 250점이면 합격인데 6시간씩 이틀 및 다음날에 3시간으로 3일에 걸쳐 15시간동안 시험을 본다. 방법은 비슷하나 과제로는 좀 더 복잡한 건물의 설계를 요구하고 Architectural Design-1시험과는 달리 시공상제도, 공사비 개략견적이 요구되며 표현기술 뿐 아니라 계획 개념이나 건축 법규 등의 해결까지 요구된다.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경험이라는 구두시험은 100점 만점에 45점 이상이 합격 점수인데 질문의 주제는 I) 협회의 역할 II) 건축사법 1972 III) 사무소와 현장 경영관계 IV) 사회적인 책임 V) 수험자의 실무 경력 등이다. part IV시험은 실제 프로젝트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400점 만점/200점 커트라인), 앞서 제출한 프로젝트를 구두로 15분간 발표하고 (200/100) 논술시험은 a) 11-19 세기에 인도에 지어진 건물. b) 20세기에 지어진 특별한 예의 건물. c) 오늘날 알려진 인도건축가의 최근작 중 하나에 대해 평론(Critique)을 써서 A4 규격 20 페이지 이상을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너무 길어 중요한 항목만 소개했으나 기회 있으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우리 협회에 참고로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10) 기타 토의 사항

ACAE는 CODHASIA의 의장도 ACA가 열리는 해에 ACAE와 함께 선출되어야 할 것을 권했다. 덧붙여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스리랑카, 인도 등은 영연방 건축사연맹 (CAA)였고, 때문에 영국 건축교육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고,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은 각자의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공식, 비공식 연계 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의 SCI-Arc이나 영국의AA School과 연결을 갖고 있고 정부가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도네시아는 나름대로의 인증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 했고, Alwis의장은 ARCASIA 내에 새로운 인증제도가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어 싱가포르는 인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소한의 인증기준 (minimum standard of accreditation)에 관한 협의를 차기 FORUM 7에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Committee on Common Program on the Accreditation

ation

- Prof. Wardi(PAM)/의장
- Sombat(ASA)
- Patrik Lau(HKIA)
- Yolanda D. Reyes(UAP)
- Hideto Horiike(JIA)

### 3. 아시아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 (CODHASIA)

‘학장단 협의회’ 결성에 관한 사항은 마닐라 대회 8회 교육위원회회의(1994.12.12-13)에서 처음으로 필리핀(UAP)에 의해 제안되었고 당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아시아 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첫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자료 : 건축사 9503, p122-123, 조인숙) 이 모임의 주요 목적은 1) 조직망 구축, 2) 건축대학들의 자료수집, 3) 교수 및 학생들간의 교류 및 협력, 4) 연구협력 등을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9회 교육위원회 회의(95.11.24-25)때 다시한번 언급되었다. (관련자료 : 건축사 9602, p109, 이정근, “토의 결과는 ACAE기구 내에 건축대학 학장단 이사회를 결성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유는 ACAE는 건축실무와 관련된 교육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는 교육학, 교육이수과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카르타 회의에서 예산도 없고 기금도 없는 상황에 별도의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성할 수 있게 하려면 ACAE의 방침 아래서 회의를 하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하루는 ACAE, 하루는 학장단회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수밖에 없다고 의장이 강력히 주장을 했으며, 회의 참석자의 약 반 정도는 학장단 회의 때문에 참석을 했고 교육위원회 본 의제 진행이 안되므로 학장단 회의에 커피타임 이후 시간을 할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음에는 학장단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ACAE대표들을 위해 23일 오후 별도로 회의를 했고 본 협회 교육위원회 대표들은 참관인 자격으로 계속 회의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의 구나완(Dr. Gunawan Tjahjoho) 교수를 의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중요한 의제는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 특히 커리큘럼에 관해

- 1) 디자인 스튜디오식 교육에 의거한 연구과제
  - 상호간의 공동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일량이라든가 문제의 본질, 평가범위나 과정 및 관련학과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학생 및 교수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므로서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이나 가치를 겪을 수 있다.
  - 교수 1인당 학생수 및 인구비례에 따른 등록건축사 등의 자료가 마련되어야 각국에서 필요한 수와 결과를 알 수 있다.
- 2) 교수의 실무참여의 기회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럴 경우 권리의 남용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 3) 학비에 관한 것
- 4) 교수의 실무참여에 대해
  - Patrik Lau(HKIA)교수는 좋은 교수이라면 반드시 설계자여야 한다고 했고 Alwis(SLIA)교수는 실무하는

것이 왜 제제를 받느냐의 이야기는 스리랑카의 경우 교수급여만으로는 살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설계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교육기준이 무엇이나?(IAP)

인도에서는 정교수가 실무하는것이 허용되었고 일반 건축사 50%가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IIA)

- Wardi (PAM)

창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something else)이고 건축가라는 직업의 최종결과물은 연구결과물이 아니다. 박사학위(phD)는 연구에 치중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홍콩에서는 커리큘럼 특히 설계과정(Design Studio)에 대해 좀 더 언급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technology)교수들이 점점 스튜디오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실상 실무와 교육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건축가 양성을 위해 교수들은 영국학제에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미(British system with American way of thinking)한 균형있는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며 단 한번도 아시아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서기 2000년이 풍수(風水)이론상 ‘地(earth)’에 해당하는 해라는 것을 덧붙였다. (HKIA)

- Yolanda (UAP)

이 회의의 중요의제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보완할 수 있겠는가이다. 사실상 이론과 실무성은 서로 손잡고 가야 할 것이므로 커리큘럼이 면밀히 검토되어야만 한다. 현재 필리핀에서 건축학 석사(MArch)자격을 주는 학교는 2학교 밖에 없다.

건축대학학장단 모임의 명칭을 놓고 Council이나 Committee 혹은 Sub-Committee나의 논의를 벌이다 ‘독립된 Council’ 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사회 하루 전에 각자의 비용을 들여 소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였다.

- Dr. Gunawan Tjahjoho (IAI) 의장

- Yolanda D. Reyes (UAP) 부의장

- Hideto Horike (JIA) 부의장

이후 이사회에서 ACAE의장은 건축대학학장단 모임을 ‘Council’이라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CODHASIA는 ACAE의 한 기구(arm)여야 하고 과거의 ARCASIA의 역사와 정관에 의해 Council은 하나 밖에 있을 수 없으며 소위원회회 일수는 있지만 별도 조직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4. 지역별 활동 : 보고 없음

### 5. 건축교육헌장(UIA-UNESCO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교육헌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헌장의 일반적인 의도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일반사항 제 6조항은 각 회원국에서 검토한 후 1997년 일본회의시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나라간의 건축가들의 왕래가 빈번해짐은 개개인의 학위라든가 자격증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의 상호 인정 및 유효함이 촉구된다.” 이 조항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UIA교육위원회에서 ACAE측에 아시아지역의 건축

교육은 UIA가 정하는 미국식 또는 영국식을 해야한다는 망언에 아시아지역의 건축가들이 발끈했다.

### 6. 1997-1998년도 ACAE의장 선출

말레이시아(PAM)의 Prof. P. Wardi가 필리핀(UAP)의 추천과 스리랑카(SLIA)의 제청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 7. 기타

- 8차 ACAE회의시 전임 의장(P. Kasi/PAM)이 임기가 끝난 의장은 차기 2년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는데 정작 본인도 이사회회의 회의록 작성자이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이 제의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ACAE는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에 회의 전반에 걸쳐 녹음 및 기타 준비에 감사를 표했다.

### 마무리에

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은 지난 1985년 인도 봄베이에서 회원국으로 승인된 이후 11년째가 된다. 보고서 준비를 하다 회의차수에 착오가 생긴 것을 알고 과거 12년간의 자료를 다 찾게 되었다. 회의 참석전 ARCASIA에 제출하는 KIRA연례 활동보고서(영문), 현지에서의 월세 없이 계속되는 행사, 그리고 귀국 후 활동보고서 등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과거를 더듬어 보려고 일일이 보고서를 읽다 보니 이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곳에서 받은 자료에 일련번호를 붙여 그냥 협회에 내고 회의테이블에서 거론된 것들만 보고서에 언급했었는데, 각국의 연례보고서 내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 회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정말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보고서를 쓴 것이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GNP는 낮아도 건축사의 수준은 상당히 우수하다. 첫째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당연히 수준급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역 건축사들이 미래의 건축가들을 위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성룡 · 조인숙 / 본협회 교육위원회〉

##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이사회 보고서

제7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제17회 아시아 건축사이사회 그리고 제10회 아시아 건축사교육위원회, 제6회 학생잼보리대회가 1996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호텔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및 부미위وتا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23, 24일 양일간 연속해서 15개국 회원국중 3개국(중국, 몽고, 마카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연속 회의로 열렸으며 건축사대회는 25, 26 양일간에 걸쳐 "영혼 속의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건

축사와 학생들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본 협회에서는 김무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국제위원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고문, 이근창 국제위원, 조성룡 교육위원장과 조인숙 교육위원이 참가하였으며, 제6회 아카시아 학생잼버리 대표로는 '96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진수, 김현숙 학생이 참석하였다.

###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

아카시아 회장인 말레이시아의 Esa Mohamed의 아카시아 정신에 관한 인사말과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장 Suntana의 환영사에 이어 명예서기의 회의안건, 진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제16회 이사회회의록의 승인, 재정 담당의 예산집행 현황 보고를 마친 후 안건별 토의를 시작하였다.

###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1. 아카시아 회원국의 입회절차, 승인, 조건 기타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소위 아카시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건축사 보유수, 협회의 규모, 활동내용 등은 현재 회원국 신청을 한 네팔, 베트남, 브르나이 등의 입장에서는 그들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아카시아가 너무 폐쇄적으로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 감사로 있는 홍콩은 Ronald Poon이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다. 본 아카시아 핸드북과 체크리스트에 추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감사에게 직접 전하기로 했다.

### 행사 일정표

일자	시 간	행 사 내 용
9. 23(월)	09:00~17:00	아카시아건축상 및 아카시아 학생건축상 심사
	09:00~10:30	아카시아 이사회
	10:30~10:45	휴식
	10:45~12:00	아카시아 이사회
	12:00~13:00	중식
	13:00~14:30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14:30~14:45	휴식
	14:45~17:00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19:00~22:00	석식
	9. 24(화)	09:00~10:30
10:30~10:45		휴식
10:45~12:00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12:00~13:00		중식
13:00~14:30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14:30~14:45		휴식
14:45~17:00		아카시아 이사회/ACAE 회의
19:00~23:00		학생잼버리 개회식
9. 25(수)	08:00~09:00	학술토론회 등록
	09:00~11:00	ACA-7 개회식
	12:00~13:00	중식
	13:00~14:30	학술토론회
	14:30~14:45	휴식
	14:45~17:00	학술토론회
	19:00~23:00	우정의 밥
9. 26(목)	09:00~10:30	학술토론회
	10:30~10:45	휴식
	10:45~12:00	학술토론회
	12:00~13:00	중식
	13:00~14:30	학술토론회
	14:30~14:45	휴식
	14:45~17:00	학술토론회
9. 27(금)	전일	자카르타 시내관광
	19:00~23:00	ACA-7 폐회식 및 건축상 시상식

2. 본 협회에서 주관하여 제작한 아카시아 북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출판사의 재정적인 문제가 토의되었다. 아카시아 북 발간의 목적이 아시아 건축사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되는 건축설계시장에 대처하는데 있는 것에 공감하였고 각 회원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싱가포르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원국별 배당된 100부씩의 판매가 이행되지 않았으나 형편에 맞도록 재신청 하기로 했다.

3. 제18회 아카시아 이사회는 1997. 9. 20~21일까지 일본 Tokyo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제9회 포름(학술대회)은 이사회와 동시에 Tokyo에서 "아시아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아카시안 Fellowship의 기본 개념과 취지는 아카시아의 전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의 고문역을 담당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위치가 아카시아 이사회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으며 결정사항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Fellowship의 자격 요건은 전임회장, 부회장, 교육위원장을 역임한 자와 아카시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제반사항은 홍콩 Ronald Poon이 작성하기로 한 초안을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다.

6. 아카시아 건축상에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반가운 일이나 각 작품의 심사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표현 방법과 제출설명서가 통일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다 더 좋은 작품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작품을 각 회원국에서 1차 심사후 제출하고 통일된 양식의 작성이 필요하다. 아카시아 건축상에 제출하는 작품에 관한 제출 서식과 양식은 파키스탄의 필 그라미와 필리핀 암코르도가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7. 회원 가입을 위하여 싱가포르 이사회에 옮겨버로 참석했던 네팔과 베트남이 본 이사회에 참석치 않았으나 브르나이는 가입을 위하여 참석하였다.

참석치 않은 나라는 계속 옮겨버로 남게 되며 브르나이는 현 정관에 의해 최소 50명 이상의 건축사를 확보한 협회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10여명의 건축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정관개정 문제로 아카시아 핸드북의 수정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8. 실무 건축사에 관한 UIA규약에 관한 사항은 아카시아를 대표해 싱가포르의 에드워드 실버가 대응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모든 회원국은 그 의견을 실버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9. 현재 말레시아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발간되는 「ARCASIA QUARTERLY」는 「ARCHITECTURE ASIA」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고 소제목을 「A JOURNAL OF ARCASIA」로 정하기로 하였다.

10. 교육위원회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장단 회의는 별도의 이사회 구성을 금하며 현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1. 다음 회기의 회장 선출에 있어 스리랑카의 스라 위크라마시그하지씨가 자진하여 출마하였으며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부회장은 ZONE A에 파키

스탄의 게프리씨 ZONE B에 싱가포르의 실버씨 ZONE C에는 홍콩의 정씨가 선출되었다. 이들이 추후 2년동안 아카시아를 대표하게 된다.

12. 기타 사항으로 회원국간의 지부설치 건이 논의되었다. 현재 필리핀 건축사협회에서 싱가포르 지부 신청이 요청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회원국끼리 지부 설치에 아카시아 정신에 위배되며 제16회 대회에서 결의한 윤리규약에 위배됨으로 금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이 참석치 않았으나 1999년 UIA 총회가 중국에서 개최되므로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을시 가능한 여러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몽고 대표단은 임원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그의 완치를 바란다.

13. 아카시아 상에 본 협회 회원의 6작품이 제출되었으나 안타깝게 수상작은 없었고 각 분야별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다.

주거 부분은 인도네시아 Yoriantar's Marrlo Durnawijaya의 작품 「Self Help Housing」이 수상하였고 일반 시설에는 말레이시아 Trhamzah & Yeang, Sdn Bhd 작품 「Menara mesiniaga」 작품이 공업부문은 수상작이 없었고 전통부문에서는 일본의 Maki Eiji, misu kunihiro, Hamada와 Akitito의 공동작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Dunhuang Cane Cultural Asset Center」가 수상하였다. 매년 본 협회에서도 작품을 출품하고 있으나 좀더 정성을 기울이고 특히 전통부분에 좋은 작품을 제출하여 국내 건축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발전시키기 바란다.

14. 회의를 마치며 현 Esa Mohamed 회장은 이임사에서 아카시아의 기본정신인 회원국간의 협조와 아시아인의 기본정신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주어진 환경을 유지 발전시켜 세계 속에서 발전가능성 있는 유일한 아시아의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를 기원하였다. 끝이어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므로 아시아 건축가들의 뜻에 걸맞는 제8차 건축사대회를 치르도록 최선을 할 것이며 국제관계에서의 아시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정열을 바치겠다는 다짐으로 답하였다.

### 맺는말

제7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전반적인 구성은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해 보였고 진행에 있어 행사의 흐름이 매끄럽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특히 건축가 출신 시프러스씨의 과대포장된 개발사업 현장의 방문과 도에 넘치는 저택에서 행해진 저녁만찬은 인도네시아 건축발전의 흐름을 보는 듯 하였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오랜 1인통치에 의한 역사 속에 정치와 건축이 밀착되어 새로운 창작활동에 저해요소를 일깨워 주었다. 가용할만한 광활한 대지를 보며 그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매꾸어 갈지 또다른 혼돈된 도시의 생성을 바라보는 듯하였고 대중교통과 인프라스트럭처가 우선되어야 할 시점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개발업자들의 장사 속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이사회를 마치며 현재 아시아 회원국의 문제점을 올바른 정치인에 의한 올바른 건축 이해와 이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개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에 있어 특출한 건축가의 입김이 절대 필요하며 건축가의 정치 진출이 그 해답의 하나일 것이라고 느꼈다.

(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